

우리말 표기 방식 문자별 예시 몇 가지

俞 萬 根

(성균관대 영문과 교수)

우리말 발음을 현행 한글맞춤법으로 표기할 때,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 그 하나는 모음에서 긴소리·짧은소리 구별을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음에서 사이된소리나 추가/n/소리를 완전히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구적·비정상적’ 맞춤법에 대하여 우리말 音素·韻素(특히 chroneme, 長韻素)를 완벽에 가깝게 표기할 수 있는 방식을 ‘正常表記’ 방식이라 불러둔다.

우리말 발음 실상을 좀더 정확히 나타내자면, ①현행 맞춤법 표기에 보조기호를 사용하거나, ②국제음성기호(IPA)로 적거나, ③로마자 또는 ④회랍(헬라)자로 표기하거나, ⑤한글맞춤법 개선보완을 시도해볼만한 것이다. 지금부터 이상 다섯가지 正常表記 방식을 예시해 본다.

예문으로는 黃順元의 단편소설 ‘소나기’ 첫머리 일부를 이용했다.

※ 표기방식 분류

- 1) 체계적 표기(systematic transcription): 음운학적 표기
- 2) 인상표기(impressionistic transcription): 점령군(military phonology)이나 선교사(missionary phonology) 또는 일반인 상식에 따른 임시적 표기.

※ 파열음 분류표

연한소리(lenis)		세찬소리(fortis)	
예사소리	숨보텐 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b	b ^h	p	p ^h
d	d ^h	t	t ^h
g	g ^h	k	k ^h
무성 연한소리(devoiced lenis)		유성 세찬소리(voiced fortis)	
b̥ d̥ ɡ̥		p̣ ṭ ḳ	

[예시 1] 한글에 보조기호 사용

긴 모음 표시를 위해 옛글 上聲點(·)을 쓰고, 사이된소리나 추가/n/ 소리 표시에는 올린 半點(')을 쓰기로 한다.

소 나 기

황 :순 원

·소년은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시
네 증손자 딸이라는 걸 :알'수 있었다.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담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
이다.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기나
한 듯이.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
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서 하고 있다.

·소년은 개울'둑에 앉아 버렸다. ·소녀가 :비키
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요행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소녀가 길을
:비켜 주었다.

다음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
수를 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
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희었다.

[예시 2] 국제음성기호(IPA) 사용

s^honagi

hwaŋ s^hu:nwɔn

s^ho:njɔn un ɣeulka:eshɔ s^ho:njɔ rul bodza god
ju:ntɛ^hosine dzuŋ s^hondza tariranum ɣol a:lsu
isɔdta. s^ho:njɔnum ɣeureda s^hon ul damguwo
muldzanⁿan ul hago innum ɣɔshida. s^hɔul s^hɔnum iron
ɣeulmurul bodzi mo:dt^hagina han du:shⁱ.

bɔlsɔ mjɔtɛ^hil tɛɛ s^ho:njɔ num hagkjo es^hɔ dora
onum ɣire muldzanⁿanijɔdta. ɣurɔnde ɔdze kadzi num
ɣeul ɣis^huɔlɣeshɔ haduni, onurum dzingɔmdari
hangaunde andzɔshɔ hago idta.

s^ho:njɔnum ɣeultuge andzɔ bɔrjɔdta. s^ho:njɔ
ga bi:k^higirul gidaridzanum ɣɔshida.

johɛŋ dzinaganum s^ha:rami isɔ, s^ho:njɔga ɣirul
bi:k^hjɔ dzuɔdta.

daum narum dzom nuɔdke ɣeulka:ro nawadta.

i narum dzingɔmdari hangaunde andzɔ
s^he:su rul hago isɔdta. bu:nhoŋ s^hweta somerul
ɣɔɔɔ ollin p^hal ɣwia mogtolmi ga manjaŋ hiɔdta.

[예시 3] 로마자 사용

Sonagy

Hwang Souhn-Waun

Sohnyaun un gaioul c'gah esau sohnrau rul boja god
Youn chosih ne jungsonja tal ira'nun gau'l ahl c'sou
issaudta. Sohnrau nun gaioul eda son ul damgugo
mouljangnan ul hago innun gaus-ida. Sauoul-sau nun iraun
gaioul mou ul boji mohd-hagy na han dusi.

Baulssau mechil czai sohnrau nun hagkyoh-sau dora-
onun gil e mouljangnan iyaudta. Guraunde auje kaji nun
gaioul gisulg-esau haduni, onul un jinggaumdary han
gaounde anjausau hago idta.

Sohnyaun un gaioul c'doug e anjau bauryaudta. Sohnrau
ga bihkhigy rul gidarija'nun gaus-ida.

Yoxhaihng jihnaganun sahran i issau, sohnrau ga gil ul
bihkhyau jouaudta.

Dawum nal un jom nudke gaioul c'gah ro nawadta.

I nal un sohnrau ga jinggaumdary han gaounde anjau
sehsou rul hago issaudta. Bouhnhong swetha c'somai rul
gaudau olin phal gwa mog-daulmy ga manyang hiaudta.

(註1 참조)

[예시 4] 희랍(헬라)자 사용

Σωναγη

Χουανγ Σουυν Ουον

Σωωνιον υν γαιουλ κ'γαα εσο σωωνιο ρυλ βωζα γωδ
'Ιουυν τζχωσειη νε ζυνγ σωνζα ταλ ιρανυν γο'λ ααλ ε'σου
'ισσοδτα. Σωωνιο νυν γαιουλ εδα σων υλ δαμγυγω
μουλζανγναν υλ καγω ιννυν γοσ-ιδα. Σούυλ σουυν ιρον
γαιούυλ μουλ υλ βωζι μωωδ καγη να καν δυσι.

Βολεσο μιοτζχιλ τζαι σωωνιο νυν καγκιωω σο δωρα
ωνυν γιλ ε μουλζανγναν ιιοδτα. Γυρονδε όζε καζι νυν
γαιούυλ γισυλγ-εσο καδυνι, ώνυλ υν ζινγγομδαρη καν
γαούνδε άνζοσο καγω ιδτα.

Σωωνιον υν γαιούυλ τ'δουγ ε άνζο βοριοδτα. Σωωνιο
γα βιηκχιγη ρυλ γιδαριζανυν γοσ-εδα.

'Ιωχαιινγ ζιηνανυν σααραμ ι ίεσο, σωωνιο γα γιλ υλ
βιηκχιο ζουοδτα.

Δαυμ ναλ υν ζωμ νυδκε γαιούυλ κ'γαα ρο ναουαδτα.

'Ι ναλ υν σωωνιο γα ζινγγομδαρη κανγγαούνδε άνζο
σεεσου ρυλ καγω ιεσοδτα. Βουυνχωνγ σουετχα ε'σωμαι ρυλ
γοδο ωλλιν πχαλ γουα μωγ-δολμη γα μανιανγ χιόδτα.

(註2 참조)

[예시 5] 한글 正常表記방식 사용

소나기

황 순 원

송년은 개울쌍 에서 송녀를 보자 곧
윤 초심내 증손자 딸이라는 거리 앞 '수
이썸다. 송녀는 개울에다 손을 담그고
물장난을 하고 인는 것이다. 서울서는
이런 개울 물을 보지 뽀하기나 한드시.

벌써 며칠째 송녀는 학교서 도라
오는 길에 물장난이열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하드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
가운데 안저서 하고 일다.

송년은 개울쪽에 안저버련다. 송녀
가 빙키키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요행 쟁나가는 상람이 이썸, 송녀가 길을
빙켜 주일다.

다음날은 좀 늦게 개울쌍로 나와다.

이날은 송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안저
생수를 하고 이썸다. 붉홍 쉼타 '소매를
거더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히일다.

(註3 참조)

註 1: 우리말 音素, 韻素에 대한 로마字 배당.

우리말(현대 서울말) 음운체계를 보면, 본절음소 30에 超本절음소 하나가 있다. 즉, 모음 9, 그에 따르는 길이韻素 1, 반모음 2,* 자음 19이다.

거기에 로마자를 다음과 같이 배당하고 설명을 곁들이겠다.

이 /i/—i, y	ㅁ /m/—m	ㅈ /dʒ/—j
에 /e/—e	ㄴ /n/—n	ㅉ /tʃ/—cz
애 /ɛ/—ai	ㅇ /ŋ/—ng	ㅊ /tʃʰ/—ch
아 /a/—a	ㅂ /b/—b	ㅅ /sʰ/—s
어 ¹ /ɔ/—au	ㄷ /d/—d	ㅆ /s/—ss
오 /o/—o	ㄱ /g/—g	ㅎ /h/—h
우 /u/—ou	ㅍ /p/—p	(이) /j/—y
으 /ɯ/—u	ㅌ /t/—t	(우) /w/—w
어 ² /ə/—eu	ㅋ /k/—k	ㄹ /l/—r, l
길이韻素:/—h	ㅍ /pʰ/—ph	
	ㅌ /tʰ/—th	
	ㅋ /kʰ/—kh	

* 漢字音 ‘의’를 단독으로 길게 발음할 때, 앞엿 요소는 반모음이 되고, 뒤엿 요소가 음절핵을 이루는 모음(syllabic vocoid)이 되는 것으로 보아 [wi] (=üi)로 표기한다면 반모음은 셋이 된다. 그러나 ‘의’字가 단어 첫 음절에 오면 대개 [wi] 또는 더러 그냥 [w]로 되며, 그것이 끝음절에 오면 단순히 [i]로 발음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의지(依支) [w(j)dzi], 의예과(醫豫科) [wje:kwa], 의의(意義) [w:i].

현대 국어에서 ‘의’는 사실상 漢字音에만 쓰이는 소리인데(소유격 조사 ‘의’字의 음가는 [e]이며, ‘늑, 락, 뵤, 썩, 뵤’字처럼 初聲子音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단어 속에서 모두 [i]로만 발음 된다. 순 우리말의 유일한 例로 되어 있는 ‘의젓하다’는 실제 음가로 보아 ‘으젓하다’가 어쩐다 ‘의—’로 잘못 유추표기되어 지금까지 그냥 내려오는 것으로 본다.

어쨌든 음소 표기를 하는 경우 漢字音 ‘의’는 단독으로 읽힐 때 또는 단어 첫 음절에서 wi字로 표기하고, 단어 끝에서는 단순히 /i/로 여겨 표기해서 무방할 것이다.

파열음 (터지미, plosive) 로마자 배당 解説

ㅂ, ㄷ, ㄱ — b, d, g

ㅍ, ㅌ, ㅋ — p, t, k

ㅍ, ㅌ, ㅋ — ph, th, kh

로마자에는 파열음을 적는 글자로 p/b, t/d, k/g 세 쌍이 있고, 우리말 파열음은 ㅂ/ㅍ/ㅍ, ㄷ/ㅌ/ㅌ, ㄱ/ㅋ/ㅋ처럼 3자 대립 체계이므로, 각 음소에 로마자를 배당하는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것이다.

이 현부(1983)이 우리말과 영어 파열/파찰음의 소리바탕(feature) 비교표를 만들어 밝힌 바와 같이, 우리말 /ㅂ, ㄷ, ㄱ, ㅍ/ 소리는:

① 위치에 따라 무성음도 되고 유성음도 되며, [±voi].

② 初聲일 때 경미한 添氣(aspiration)를 띠지만 그것은 거센소리 /ㅍ, ㅌ, ㅋ, ㅌ/에 비하면 무시할 정도 밖에 안 되고, [-asp].

③ 발음 기세가 세찬 소리(fortis)가 아니라 연한 소리(lenis)이다. [+len].

그래서 우리말 파열/파찰음의 예사소리는 영어 p t k ch 소리보다 b d g j 소리에 훨씬 더 (적어도 2배 이상) 가까운 것이다.

51개 언어의 발음표기 예를 보인 국제 음성학회 원칙(The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 p. 44)에도 간략표기에서는 ㅂ ㄷ ㅌ ㄱ 소리에 b d ʃ g 가호를 쓸 만하다고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영어에서는 한 형태소의 끝 소리가 有聲, 無聲을 엇바꾸면서 변이형태(allomorph)를 이루는 경우가 비교적 많지 않다. 고작 명사의 복수, 그리고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s와 동사의 과거를 나타내는 -ed가 대표적 예가 될 텐데, s字는 원래 [z]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어서 無聲音 글자로서 여기서 대표글자가 되었지만, 파열음의 경우는 사정이 달라서, 有聲音 글자 d가 대표 글자가 되었다. 영어에 비하여 가령 和, 獨, 露 語에는, 한 형태소 끝소리 파열음이 有聲, 無聲을 엇바꾸면서 변이형태를 이루는 예가 不知其數로 많다. 그런데 이들 언어에서 철자상 모두 有聲音 글자를 代表 글자로 삼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和]	pad [t]	paden [d]	(길, path)
	heb [p]	hebben [b]	(가지다, have)

〔獨〕	halb [p]	halbes [b]	(절반, half)
	Bund [t]	Bundes [d]	(묶음, bunch)
	Tag [k]	Tages [g]	(날, day)
〔露〕	хлеб (khleb) [p]	хлебу (khlebu) [b]	(빵, bread)
	суд (sud) [t]	суда (suda) [d]	(법정, law-court)
	враг (vrag) [k]	враги (vragi) [g]	(적, enemy)

(Unbegaun 1957 참조)

여기에 우리말 예를 놓아 보면

(집, house)	jib [p]	jib e (집에) [b]
(못, cannot)	mohd [t]	mohd wa (못 와) [d]
(책, book)	chaig [k]	chaig i (책이) [g]

以上の 和, 獨, 露 그리고 우리말 예를 아울러 다 보고 난 뒤에도, 어느 언어에서거나, 밀줄친 b, d, g'字를 버리고 그 대신, p, t, k 字를 쓰자고 등에 닿지 않는 주장을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b, d, g 字를 예사소리에 배당하고 나면 p, t, k 가 남는데, 이것들을 된소리와 거센소리 양편 중 어디에 배당할 것인가?

p, t, k 字가 로마字의 본 고향이라 할 라틴어나 로맨스 언어에서 거센 소리로 발음되지 않는 반면, 한국어의 거센소리는 영어나 심지어 독일어보다도 훨씬 더 거센 소리이기 때문에 ㅍ ㅌ ㅋ의 音價를 제대로 반영하자면 역시 ph th kh 처럼 添氣性 기호를 덧붙이는 것이 p t k 字보다는 나을 듯하다.

그리하여 ㅍ ㅌ ㅋ에 ph th kh 字를 배당하고 나면 p t k 字는 별 저항없이 로마字 원 고향 음가에 가장 가까운 ㅃ ㅆ ㅈ 소리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모음간에서 유성음화 하지 않는 된소리 음가에 맞고 실용상으로도 pp 나 bb 같은 글자 겹치기보다 훨씬 간편하다.

註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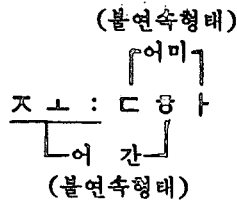
희랍문자와 音價

<i>Letter.</i>	<i>English.</i>	<i>Greek small.</i>	<i>Capital.</i>	<u>Sound</u>
Alpha	a	α	A	a / a
Beta	b	β	B	b→β
Gamma	g	γ	Γ	g / ɣ
Delta	d	δ	Δ	d→δ
Epsilon	e (short)	ε	E	e
Zeta	z	ζ	Z	dz→z
Eta	e (long)	η	H	ε→i
Theta	th	θ	Θ	t ^h →θ
Iota	i	ι	I	i
Kappa	k	κ	K	k(ττ)
La(m)bda	l	λ	Λ	l
Mu	m	μ	M	m
Nu	n	ν	N	n
Xi	x	ξ	Ξ	ks
Omikron	o (short)	ο	O	ɒ
Pi	p	π	Π	p(ππ)
Rho	rh	ρ	P	r
Sigma	s	σ or ς	Σ	s/z
Tau	t	τ	T	t(ττ)
Upsilon	u	υ	Υ	y→i
Phi	ph	φ	Φ	ph→f
Chi	ch	χ	X	x→x/ç
Psi	ps	ψ	Ψ	ps
Omega	o (long)	ω	Ω or Ω	o / ɔ

註 3: 맞춤법 補完문제

正書法에 긴 모음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로마字에서는 aa, ee, oo...처럼 같은 글자 겹치기가 행해져 왔지만 한글에서는 글자 모양 때문에 이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新小說에는 이를테면 「도울집(石造屋), 바암밥(粟飯)…」 같은 방식이 눈에 띄는데 그보다 나은 방식으로 「돌집, 쌀밥…」처럼 無聲母音 글자인 ㅎ반침 채택을 생각할 수 있다. ㅎ字를 긴소리 기호로 쓰자면 음성학적으로 無理가 있는 현행 ㅎ반침 용법을 폐지하는 것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ㅎ반침은 현대언어학의 주요 개념인 音韻倒置(metathesis), 不連續形態(discontinuous morph), 先行添氣(pre-aspiration)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잘못 定한 것이다.

가령 「좋다」를 소리나는 대로 音韻배열을 하고 形態분석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사이된소리를 보조기호 아닌 字母로 표시하자면 옛글에 나오는 된시옷 용법을 살려 쓰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밤쌈(夜食), 손뽕(手背), 산(山)엿승…」처럼. (비교: 빵, 떡, 점…)

이런 式으로라도 한글 맞춤법을 보완하지 않으면 현행 한글철자방식은 가령 영어로 “Sleepy John seeks size six slippers to fit his feet.”를 마치 “Slipy Jon siks size siks slipers to fit his fit.”로 적는 것과 다를 없다. 또는 영어 “black goats, black coats, black cots”를 모두 “black kots”로 적고 문맥에 따라 구별하라는 것과 같다. 그러니 그 뜻과 발음을 알아내는 것이 수수께끼 푸는 듯하여 표준어발음 보급과 한글전용이 모두 可望 없거나, 기껏해야 「억지 춘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字母先進國에 綴字後進國이라는 소리를 족히 들을 만한 것이다.

表音面에서 완벽에 가까웠던 15세기 훈민정음 맞춤법은 燕山君 이래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왔고, 표음면에서는 현행 맞춤법도 별수없이 그 연장선 상에 놓여있는데 이것을 다시 끌어올려 적어도 서양각국 로마字 철자의 精密性/語義分別性 수준을 따라갈 만큼 한글맞춤법을 시급히 補完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유만근 (1989). 우리말 로마자 맞춤법 案 '89. 「人文科學」 19.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 (1990). 우리 옛글·요새말 로마글자 표기안. 「강신항 교수
회갑기념 국어학 논문집」. 太學社.
- (1991). 杜詩 諺解 로마자 표기. 「우인섭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한일문화사.
- (1992a). 「한글-로마자 대조표기 한국어 독본」. 성균관대 출판부.
- (1992b). 한글 맞춤법의 表音未備點과 發音敎育 問題. 「語文敎育」
74·75 합. 한국어문교육 연구회.
- (1993). 발음중시 국어교육론. 「말」 제18집. 연세대학교.
- (1995). 우리나라 방송언어 발음문제. 「새국어 생활」 제5권 4호.
국립국어연구원.
- 이현복(1983). 로마자 표기법의 실상과 허상. 「말소리」 6. 대한음성학회.